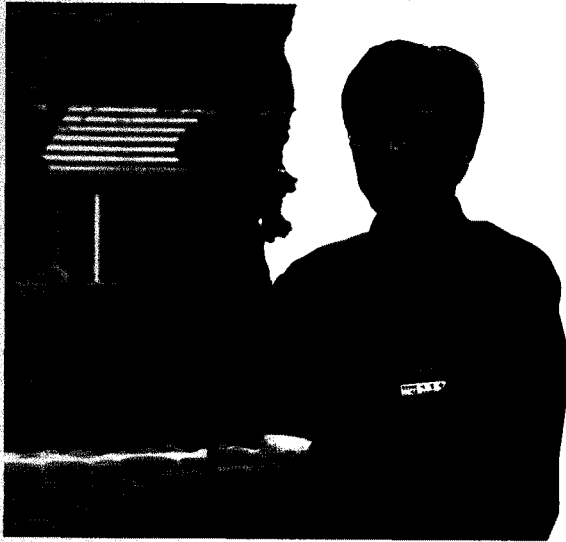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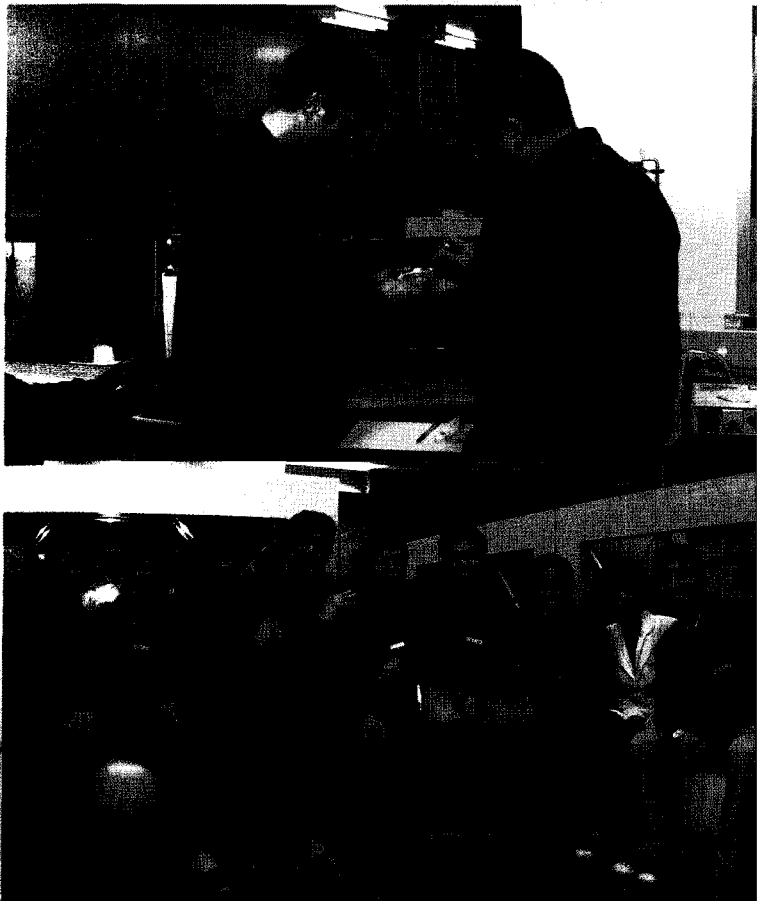
안전은 '관리'가 아니다 안전은 '문화'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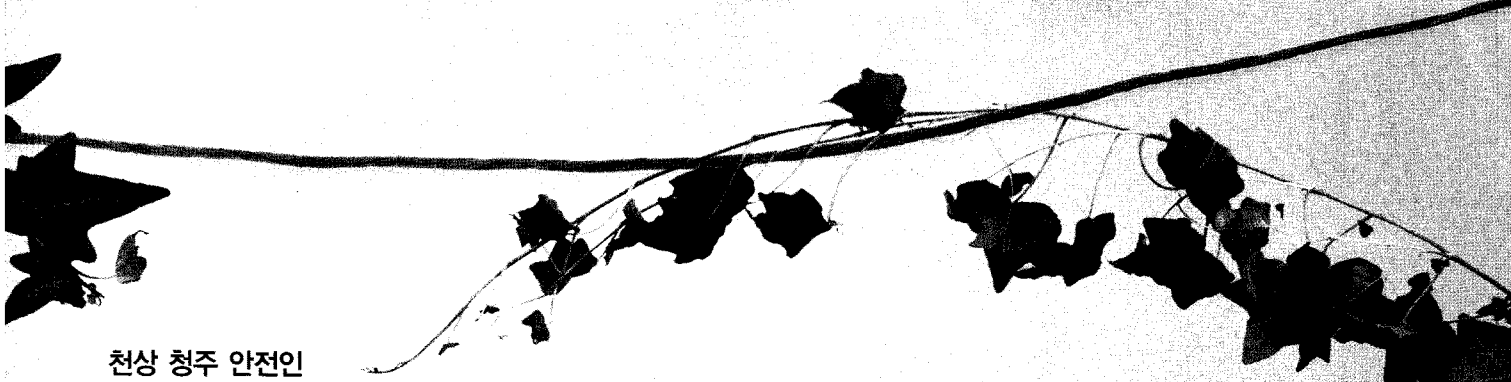


LG화학 청주공장은 청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1981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큰 사고없이 안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화학공장이라하면 언론에 알려질 만큼 큰 사고가 한 두번은 있게 마련인데, LG화학 청주공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는 없었다. 사실 LG화학 청주공장은 화학업종이라기 보다 제조업에 가까운 공정을 가진 사업장이다. 때문에 큰사고가 없었다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다치지 않도록 지켜야겠다는 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설립이래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들 중 한사람인 환경안전팀 이정수 과장을 만나 안전에 대한 그만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주)LG화학 청주공장 환경안전팀 이정수 과장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천상 청주 안전인

청주에서 나고 청주에서 자라 청주에서 대학까지 다녔으며 청주에서 결혼해 살고있는 이정수과장은 천상 '청주인'이다. 대학 때부터 안전을 전공하고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아 10년동안 업무를 해온 그는 또한 천상 '안전인'이다. 청주에서 나고 자란 청주인이 청주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 청주공장에 다니는 것은 그에게 있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10년동안 청주공장에서 안전업무를 해온 천상 청주 안전인인 이정수 과장의 안전이란 한마디로 '문화'이다.

처음 안전업무를 맡았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안전과 현장에서의 안전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배운 안전을 현장에 적용하려하니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관리'라는 개념 때문이었다. 흔히들 안전을 '안전관리'와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적 용어 자체가 '안전관리'이다 보니 안전을 '관리'라는 개념으로 현장에 접근하게 된다. 물론 안전에 있어서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관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관리라는 개념보다 '문화'라는 개념이 어울리겠다고 말한다.

무조건 적용이 아닌 문화를 형성한 안전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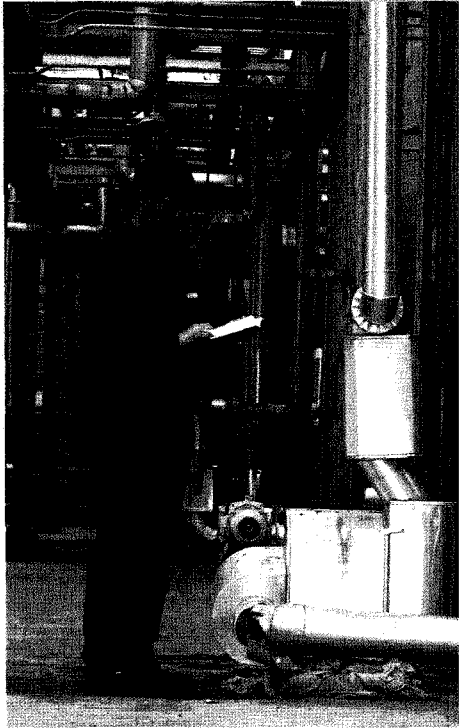
안전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LG화학 청주공장만의 안전시스템과 안전활동이 있다. 바로 'Blocking System'과 'Co-Working 활동'이 그것이다.

Blocking System이란 가동 중 설비 Error, 품질 Trouble 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3년전부터 적용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작업 일선에서의 반발이 있게 마련인데, LG화학 청주공장의 경우 이정수 과장이 입사 후 7년 동안 현장을 오가면 열심히 일해 온 것을 직원들이 알기에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 관리감독자부터 현장 오퍼레이터에게까지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니 모두들 수긍하였다고 한다.

Blocking System 도입으로 매년 수건의 공정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던 것이 차차 줄어들어 2010년에는 드디어 공정 내 무사고를 이루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 만들어지는 설비에는 안전장치가 설계시부터 고려되어 있어 안전장치를 철저히 설치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만약 몇몇 다른 회사들처럼 안전문화 형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전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면 실패하였을 지도 모른다. 안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안전은 무조건적인, 강요에 의해서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르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모두가 안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말한다.

Co-Working 활동이란 단위공정별 각팀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환경안전팀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실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환경안전팀원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2010년 공정 내 무사고를 이루게 된 요인에는 Co-Working 활동도 당연히 포함된다. 현재 7개의 팀이 구성되어 Co-Working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workshop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 내 무사고에서 사업장 무사고 달성을 위해

이정수 과장의 올해 목표는 공정 내 무사고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 무사고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 보다 확고한 안전문화 정착으로 LG화학 청주공장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800여명의 직원들이 있다보니, 또 협력사 300여명이 있다보니 자연히 입사자, 퇴사자가 있게된다. 이런 경우 자칫 소홀하면 지금까지의 안전문화가 점점 퇴색되어 편함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locking System을 빈틈없이 적용하고 Co-Working 활동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길 지원한다. ☺

